



남원 농어촌공,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난 24일 남원소방서와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직원 40여 명이 참여, 정부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직원대피, 화재진압 등 3단계에 걸쳐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회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전 직원으로 구성된 지사 자위소방대의 임무 고지와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신폐소생술(CPR) 등 다양한 교육과 참여로 직원들의 협응과 관심도를 높였다.

한편 이양희 지사장은 “이번 소방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통동, 위기기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남원시 도통동(동장 김윤자)은 25일 봉사왕 봉사단체(대표 유흥석) 10여명과 관내 저소득 위기기구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웃 신고로 발굴된 이 기구는 가족과 단절 상태로 지내는 1인 중장년층(남)으로, 방광암이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식사도 제대로 못해 미른 상태에 무료 입장료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은 악취와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도움이 시급한 상황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긴급생계지원, 동 각종 도움의 손길을 연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4·H연합회 류호인 씨, 한국4·H대상 최우수상

정읍시 4·H연합회원 류호인씨가 제25회 한국4·H대상 청년4·H회원 부문에서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류씨는 내장상동에서 행복꽃동원을 운영하면서 화훼류 생산과 치유농업 체험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시 4·H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농업인들의 단체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류씨는 2009년 시 4·H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래 청년농업인 인재육성 발전기금 기부 등 지역사회 봉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나눔사업 맞손

김제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과 ‘희망 나눔 운동’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김제시 거주 아동·청소년을 위해 2년간 244만 원 상당의 장학금과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그중 1,200만 원의 장학금과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번 협약식에서 22명의 학생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2억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윤리를 인재로 성장하여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익법인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업 직접 찾아 ‘주도적 취업 준비’

전북대생들,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 106명 학생 참여… 우수학생 시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에 33개 팀, 1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저마다 희망하는 기업을 사전 분석한 후 직접 방문해 기업 현직자들에게 입사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들으며 취업 역량을 기웠다.

특히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 금융보안원 등을 찾아 기업 분석과 직무 관련자 인터뷰 등을 충실히 한 ‘사룡이 나르샤’ 팀의 박주희(경영학과), 배슬(공공인재학부), 조민지(국제인문사회학부), 김유신(무역학과) 학생과, 10에너지솔루션,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 등에 대한 기업분석 및 인터뷰 등을 충실히 한 SMS(Smart Mechanical System) 팀의 이진웅·이주현(이상 기계설계공학부), 이도훈·이찬호(이상 기계시스템공학부) 학생 등 두 개 팀이 영예의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대학내일 커스털피스, 와드캐치레이블 등을 탐방한 ‘조금만 기다려’ 팀의 김민희(공공인재학부), 손민서(국제인문사회학부), 이해은·조하진(이상 무역학과) 학생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은행 등을 탐방한 ‘기 달려요’ 팀의 최영주·김승현(이상 회계학과) 학생 그리고 LG디스플레이와 현대오일뱅크 등을 탐방한 ‘D-CHEM’ 팀의 김재혁·문상혁·박수찬·송인수(이상 화학공학부) 학생 등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박주희 학생(경영학과 3년)은 “우수한 팀들 속에서 대상을 받아 기쁘다”며 “목표한 기업에 꼭 취업하겠다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취업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지우 취업진로처장은 “기업의 달인되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직접 탐방해보고 그에 맞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우리대학만의 차별화 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 모두 주도적 취업활동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시험준비반 출신 임성민 조무관, 장학금 기탁

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전북도청 소속 임성민 주무관(27)이 공직에 입문하고 받은 첫 월급에 사비를 보태 2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 주무관은 김제시 지평산화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11개월간의 수험생활을 보낸 끝에 올해 6월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전북 지방공무원 입용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9월 전라북도 새마금حة양수산국 수산기술연구소에 임용됐다.

임 주무관은 공무원시험준비반 심화반에 선발되어 노령진 전문 강사들의 직강 프로그램과 최적의 학습환경 덕분에 학습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며, 주제에는 학습관리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공부 방향을 설정, 매주·매월 치러지는 모의고사로 실력을 점검, 제공되는 학습 자료로 공부하여 학습의 영광을 안았다고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선정

초록우산에서 진행하는 핑크박스 프로젝트에 고창교육지원청이 선정돼 고창중·자유중·장애인복지관 등에 여성 위생용품 4,000여개를 후원했다.

핑크박스 프로젝트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창교육지원청은 관내 여성 청소년들이 필수 위생용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자유중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전달식(25일)에는 고창교육지원청 유승오교장과 김정민교감 등이 참석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의 유승오 교육장은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진촬영, 독도 타투 스티커 만들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민화성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독도를 함께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모공원을 조기에 완공했다.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선진장례문화 선도…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 준공

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 제2봉안시설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제2봉안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130억원 규모로 2018년 사업을 시작해 부지 보상과 설계를 완료, 2022년 2월 착공해 10월에 제2주묘관(1만 2천여기)과 자연장지(1만여기)를 완공했다.

이로써 시는 매장시설인 시립묘지(2775기), 화장시설(화로 5기), 봉안당(7366기), 자연장지(5757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종합장사복지 문화의 선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전북지역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운영 중이며, 시는 이와 더불어 자연장지와 봉안당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민장이 빠르게 다가온에 따라 자연 친화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추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홈커밍데이 실시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4일 전주다운 문화관평형 창업선도사업 참여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홈커밍데이에는 전주다운 문화관평형 창업선도사업의 각 연도별 사업 참여자들이 참석해 2020년도 사업 참여자로 현재 ‘(주)글로벌한’을 운영 중인 조승희 창업자와 창업 초기 경영의 어려움을 딛고 법인기업 설립 및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기까지의 이야기와, 2022년도 사업 참여자로 현재 ‘조은그룹’을 운영 중인 조제은 창업자의 매장 내 외부로 다양하게 진행 중인 사업 현황 등 연도별 창업자들의 소개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광범위한 전주다운 네트워킹 구축을 이뤄냈다.

조덕현 단장은 “홈커밍데이를 통해 창업자들의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 창업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부귀면 지사협, 4분기 정기회의 개최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조봉진·방영준, 이하 협의체)는 지난 24일 부귀면행정복지센터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분기 협의체 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4분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에 추진하는 따뜻한 안방만들기 사업, 정성찬 밀반찬 나눔 사업을 위한 지원 등 세부내용과 올해 신규사업인 ‘겨울나기 방한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겨울나기 방한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에 동절기 방한용품 구비율을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돋고자 방한용품 품목 선정, 지원방법 및 지원기기 결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 춘향골발전협의회 등, 건강 나눔 영양제 기부

남원시는 춘향골발전협의회(회장 정영운)와 남원 73회에서 관내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5,200만원 상당의 영양제 2081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양제는 총 9종으로 여주, 구기자, 양배추즙, 베타글루칸 등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위 건강을 포함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제는 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남원73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및 나눔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